

# “농약분무기통 첼로가 들려주는 ‘바흐 음악’ 만나요”

‘유니크 첼로 콰르텟’ 창단 연주회, 15일 광산문예회관  
이승규 작곡가·고근호 조각가 협업...“환경에 대해 함께 생각”

고근호 조각가는 최근 몇달 동안 농약 분무기통을 들고 씨름했다. 오랫동안 폐품을 사용해 작품을 만들어온 그였지만 이번 작업은 만만치 않았다. 스테인리스 스틸 분무기통이 무려 ‘첼로’로 변신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전시장에 놓여지는 조각 작품이 아닌, 전문 첼리스트들이 연주할 수 있는 첼로로.

폐품으로 만든 첼로로 연주하는 음악회. 이런 ‘무모한 일’을 제안한 이는 광주를 소재로 한 창작곡을 만들고, 다양한 기획 연주를 해온 이승규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다.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불가능은 현실이 됐고, 첼리스트가 농약 분무기통과 연습용 첼로로 만든 악기로 바흐의 ‘무반주첼로 소나타’를 들려주는 연주회가 마련됐다.

이 씨가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건 코로나 19로 환경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다. 생상스 서거 100주년이었다. 지난해 그는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에서 모티브를 얻어 멸종동물들을 소재로 한 피아노 모음곡 ‘잃어버린 동물의 사육제’를 작곡했다.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계획을 고민하던 그는 쓰레기터미에서 발견한 재활용품으로 악기를 만들어 연주하는 파라과이 랜드필오케스트라를 알게 됐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 ‘이거다’ 싶었죠. 지금까지 폐품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악기는 대부분 타악기 위주였어요. 섬세한 현악기를 만든다는 건 쉽게 생각할 수 없었죠. 현악기 제작자 등에게도 문의를 해봤는데 모두 고개를 흔들더군요. 하지만 부딪쳐보자 싶었습니다.”

이승규 작곡가의 제안을 받은 고근호 작가는 첼로 몸체로 작은 드럼통을 떠올리고 양림동 고물상을 찾았다가 그곳에서 분무기통을 발견했다.

“이런 작업은 난생 처음이잖아요. 조형성도 고려해야하고 어떻게 소리가 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드로잉 작업을 많이했죠. 아무래도 드럼통은 좀 그렇다 싶었는데 고물상에 분무기통이 걸려있는 걸 보고 감이 왔죠. 무엇보다 조형적으로 꽤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제가 만든 첼로 네 대의 음색이 다 다르다고 하더군요. 미묘한 차이가 난다구요. 저에게도 재미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주황 작가는 연주자들이 입을 의상을 만들었다. 작업장에서 많이 입는, 위아래가 연결된 점프 슈트에 시민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남은 페인트

를 뿌려 세상에 하나뿐인 옷을 만들었다. 아무래도 연미복 보다는 노동자, 농민 등 일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의상이 제격이다 싶어서였다. 또 정권때 목공예가와 영상작가 임성업씨도 힘을 보탰다.

악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관심은 “과연, 나무 몸체가 아닌, 금속 몸체를 활용한 첼로에서 어떤 소리가 날까”하는 점이었다. 금속의 차가움이 낯설기도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듣기 편안했고, 무엇보다 악기를 직접 켤 연주자들이 흥미를 보였다.

“유니크첼로 콰르텟”은 첼리스트 박효은·정아름·김가영·김성복으로 구성됐다. 모두 환경에 관심이 있고, 무엇보다 새로운 악기와 연주에 대해 궁금증과 호기심이 많은 이들이었다. 단원들은 새로운 악기에 적응하며 소리를 만들어내야하는 터라 ‘고민’도 많다.

“제안을 받고 파라과이 랜드필오케스트라 영상을 보며 재활용 악기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늘 연주하던 첼로와는 음색도 다르고 울림도 많지 않기 때문에 연주자에게 편한 악기는 아니지만 음색을 찾아가는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첼리스트 박효은은 “힘들기는 하지만 단원 모두 새로운 도전으로 ‘소리’를 만들고, 최상의 것을 찾으려 애쓰는 중”이라고 말했다.

유니크첼로 콰르텟 창단 연주회는 오는 15일 오후 7시30분 광산문예회관에서 열린다. ‘Save The Earth’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환경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프로젝트다.

첼리스트 박효은이 바흐의 ‘무반주첼로협주곡 1번 1곡 전주곡’을 들려주며 ‘유니크첼로 콰르텟’ 다큐멘터리가 상영된다. 이어 콰르텟이 이승규 곡 ‘햄’, ‘위로’, 허시이시 조의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 마이클 잭슨의 ‘힐드 월드’ ‘베사메우조’를 연주한다. 라벨의 ‘볼레로’를 연주할 때는 박창훈, 이효성, 김경현이 무용 공연을 펼친다.

이승규 작곡가의 ‘잃어버린 동물의 사육제’도 만날 수 있다. 1곡 ‘백두산 호랑이’를 시작으로 북극곰재두루미, 수달, 흰불 코뿔소, 흰수염 고래



농약분무기통과 연습용 첼로를 결합해 만든 첼로로 연주하는 ‘유니크첼로 콰르텟’



이승규 작곡가



고근호 조각가



등 7곡은 멸종동물들을 소재로 했으며 마지막곡 ‘인간’은 즉흥곡과 퍼포먼스로 꾸며진다.

이번 행사는 ESG(환경, 사회적 책임, 책임 경영)에 관심있는 광주지역기업과 (사)광주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며 자연순환 부스도 운영한다. 문의 010-3093-4828. 티켓 가격 1만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잃어버린 빨간 오니’ 우리 친구할까?

16~17일 ACC 어린이극장

‘오니’는 일본의 요괴로 우리나라에서는 도깨비로 번역된다. 그러나 일본의 오니는 한국의 도깨비와는 서로 다른 존재다. 낯선 존재인 오니를 모티브로 다양성과 ‘나다움’을 그린 연극 무대가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이강현)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 ‘잃어버린 빨간 오니’를 어린이극장에서 선보인다. 오는 16일·17일(오전 11시·오후 3시) 하루 두 차례씩 총 4회.

연극 ‘잃어버린 빨간 오니’는 일본 작가 하마다 히로스케의 동화 ‘잃어버린 빨간 도깨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인간과 친구가 되고 싶지만 외모가 달라 외면을 받는 빨간 오니의 이야기다. 색과 모습이 달라 외면을 받는 오니는 친구 파란 오니의 희생을 통해 인간과 어울리게 된다. 작품은 더불어 사는 사회의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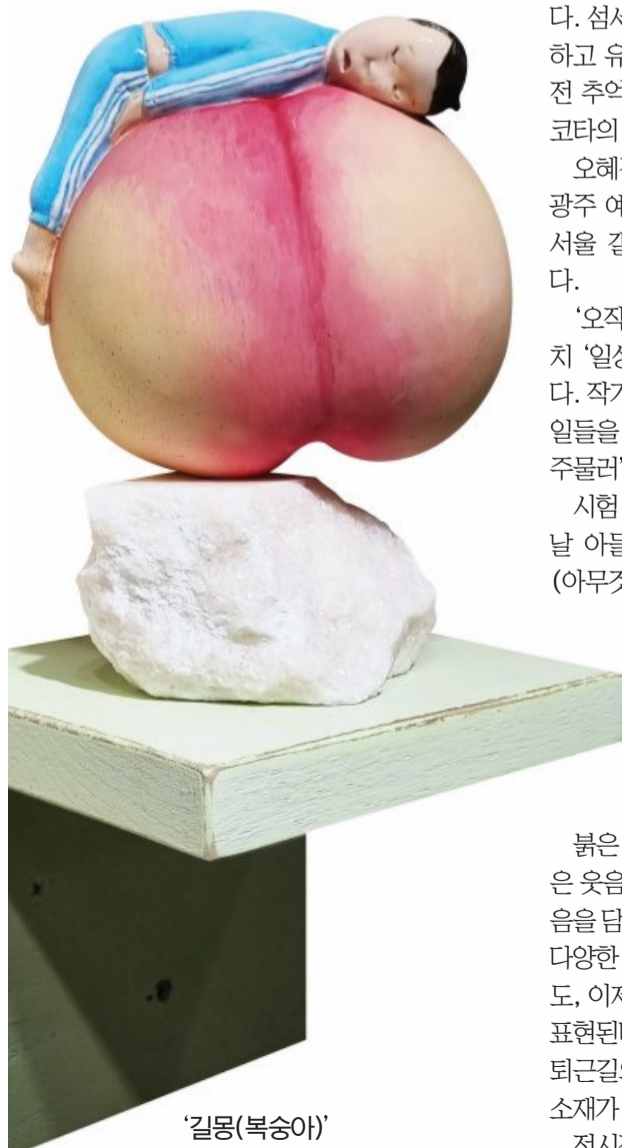


특히 이번 작품은 다양한 소품을 활용해 신체인어를 활용한 점이 특징이다. 제작단체인 ‘신비한 움직임 사전’은 막대를 부수고 쌓는 신체 움직임을 매개로 어린이 관객에게 이색적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전석 1만원.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시험 전날 아들의 기도’... ‘아무것도 안하고 싶다’

오혜경 작가 세번째 개인전, 20일까지 예술공간 집



‘길몽(복숭아)’

그 어느 때보다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는 요즘이다. 섬세한 조각가의 손으로 빚어진 ‘일상’은 따뜻하고 유머러스하다. 아픈 곳은 어루만지고, 오래 전 추억들은 다시 소환된다. 흙으로 구워낸 테라코타의 온기에 마음의 온도가 상승한다.

오혜경 조각가 세번째 개인전이 오는 20일까지 광주 예술공간 집에서 열린다. 전시는 오는 9월 서울 갤러리 코사에서도 미술 애호가들을 만난다.

‘오작가 마음’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마치 ‘일상의 일기장’을 펼쳐놓듯 소박하고 흥미롭다. 작가가 ‘항상 작은 수첩을 들고 다니며 소소한 일들을 메모하고 스케치하고 혼자 상상하고 흠을 주물러’ 만들어진 인물들이다.

시험 전날 말도 안되는 상상을 하거나(시험 전날 아들의 기도), 소파에 온몸을 맡겨버리거나(아무것도 안하고 싶다), 코로나 시대 늘어난 뱃살을 빼는 모습(확전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여 TV를 보는 풍경(개나리 아파트 105동 1003호), 드라마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흑...) 등 작가가 빚어낸 인물은 바로 나의 이야기이자, 우리 가족, 당신의 이야기다.

붉은 복숭아가 등장하는 ‘길몽(복숭아)’ 연작은 웃음을 자아낸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커다란 복숭아와 함께 조각된 인물들은 다양한 형상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오래된 연인도, 이제 막 첫결혼을 맺은 연인의 사랑도 흥미롭게 표현된다. 또 하늘로 떠난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퇴근길의 풍경, 첫사랑, 짝사랑 등이 모두 작품의 소재가 됐다. 전시작은 모두 30여점이다. 전시작들은 흙으로 조형하고 구워낸 테라코타

작품, 알루미늄 판을 직접 부식하고 요철을 만들어 드로잉하듯 만들어 낸 부조 등 작가의 손길과 시간의 공력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다. 무엇보다 인물조각상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오래된 한옥을 리모델링한 전시공간 ‘집’과 잘 어울린다.

오작가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와 동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전국조각가협회, 남도조각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 국제아트페어, 부산 국제화랑미술제, 아트부산 등 다수의 전시에도 참여했다. 문의 062-233-334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오늘부터 1일’

## ‘자연과 문화의 교감-명절음식’

광주문화재단, 14일 토크콘서트...나경수 교수 초청

자연과 문화 속에서 세시풍속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강좌가 열린다.

광주문화재단은 14일 오후 7시30분 나경수(사)전남대 국어교육과 명예교수를 초청,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빛고을융합센터콘서트를 개최한다.

“자연과 문화의 교감-명절음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강연에서 나 교수는 민중의 삶 속에 표현되는 세시풍속 의미와 자연 세시풍속 규칙을 이야기한다. 또한 예로부터 관습화된 전통의례와 놀이를 비롯해 명절음식의 인간과 자연과의 접점 등도 들려줄 예정이다.

한국민속학회 회장으로 활동 중인 나 교수는 남도민속학회 회장, 진도학회회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 ‘한국 신화 연구’, ‘호남의 문화예술과 민속’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선착순 100명 무료, 관람신청은 전화로 사전 예약. 오는 8월 11일(오후 7시 30분)에는 중앙대 김누리 독어독문학과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시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문의 062-670-792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여성가족재단, 전통시장 여성 생애구술 채록 추진

“당신을 들려주세요. 광주가 기록하겠습니다”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경)이 광주지역 전통시장에서 20년 이상 일해온 여성들의 생애구술 채록을 추진한다.

광주여성 생애구술사 아카이빙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구술채록은 양동시장, 말바우시장, 서방시장, 남광주시장, 대인시장 등 광주지역 전통시장에서 20년 이상 상인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늘 29일까지다. 재단은 올해 구술채록 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재단은 지난 2021년부터 ‘광주시민이 기록하는 광주여성의 역사’라는 취지로 광주 역사를 일구어 온 여성 활동과 기억을 채록하고 지역여성사 발굴 및 축적을 위한 아카이빙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문의 062-670-0560.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